



최민철 씨 작품

우리는 붓으로 책을 만드는 그림 형제



최민주 씨 작품



우리에게 잘 맞는 옷



독일 동화계에 그림형제가 있고, 미국 영화계에 코엔 형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일러스트계에도 걸출한 형제작가가 있다. 어린이들이 글보다 더 오래 기억하는 그림책 속의 그림들, 동화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붓으로 창조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최민주(40) 씨와 민철(37) 씨. 형은 1994년 대한출판미술대전에서 황금도깨비 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시장 나들이》(보림), 《내일이 아름다운 이유》(실천문학사) 등을 비롯한 수많은 어린이책을 그려 온 작가고, 동생 민철 씨 역시 한국출판미술협회에서 수상을 한 바 있는 실력자니 이들은 형제이면서 그림과 책으로 한 길을 걸어온 동료, 선의의 경쟁자다. 것은 단 한 번이었다고. 한달에 월급 28만 원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는 형에게 동생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다. 이런 곡절을 겪은 탓인지 두 사람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조금씩 주목의 대상이 되어 가는 현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최민주 | 저는 미술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근데 교생실습 나가면서 교단에 있는 문제들이 눈에 보이고 한계를 느끼면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죠. 1991년 11월에 <일러스트뱅크>라는 회사에서 일러스트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2년 정도 걸어왔네요.

최민철 | 저도 한계를 느낀 건 마찬가지였어요. 본래 서양화를 전공했거든요. 순수예술이라는 게 소수의 마니아들과는 소통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과는 격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더군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반인과 호흡할 수 있는 그림을 발견했죠. 확신보다는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어서 1993년에 친구가 일하는 <서울무비>에서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그것도 ‘그림쟁이’로 살아가기는 힘들 거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특유의 뚝심으로 같은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은 이제야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고

맛장구를 친다. 하루 종일 개인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형, 그리고 회사에서 창작 애니메이션을 작업하고 있는 동생은 4.5시간 안팎의 수면시간 때문에 본인들 표현대로 엉망진창(?) 일상을 보내지만 그림만 그리라고 운명지워진 사람들 마냥 지금 일이 즐겁고 행복하단다.

그렇게 잘 맞는 옷을 입기까지 슬럼프도 많았을 법한데 그동안 형제 중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지 말자'고 제안했던 것은 단 한 번이었다고. 한달에 월급 28만 원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는 형에게 동생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다. 이런 곡절을 겪은 탓인지 두 사람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조금씩 주목의 대상이 되어 가는 현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최민주 | 어린이책은 비주얼이 갖는 가치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림을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닌 엄마들은 그림의 중요성을 몰라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어린이책에서 그림의 영향력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민철 | 일하면서 우리 작업을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려면 그러지 하고 지내는데 사실 시선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좋은 그림을 그려야 저희 생각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함께 나아져야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림을 먼저 내놓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산 칼라이'로 만나는 그림 철학

'날리지 말아라(정성이 부족하다)'는 말로 서로의 그림을 평가하곤 하는 두 사람은 작업방향이나 그림의 미시적인 부분보다는 결과물을 놓고 서로에게 충고를 하는 편이다. 그런 그들의 공통점은 각자의 작품세계를 말할 때 체크 작가 '두산 칼라이'의 이름을 빼놓지 않는 것이다.

최민철 | 그분 작품을 보면 삶의 숨결이 그대로 전해져요. 삶의 사이, 결을 그려가는 사람이죠. 저는 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를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도 그렇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그분처럼 삶의 숨결을 그리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최민주 | 저도 두산 칼라이. 그분이 갖고 있는 예술성향 중에는 철학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림 속에서는 어린아이의 느낌이 그대로 우러나다가도 관화로 넘어가면 복잡한 무언가가 보이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형제대표로 지면에 소개되긴 하지만 사실 이들 가족 중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모으면 집안잔치

가 될 판이다. 막내인 최민호(34·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만 화과) 씨도 그림을 그리고 있고, 최민철 씨의 아내 역시 <서울무비>에서 아트디렉터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민주 | 삼형제가 그림을 엄청 그리며 자랐죠. 도배지에 그림을 그린 건 기본이고 16절지에 엄청나게 많은 낙서를 한 것 같아요. 이불 속에서 레슬링 하면서 장난치던 기억... 생각나?

최민철 | (웃음) 그림.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컸는데 이제 자기 분야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하죠. 정말 힘들 때는 말리고도 싶었지만 사실 각자 그림을 선택했다는 것에 후회나 불만은 전혀 없어요.

일러스트 전문학과, 전문학원 등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과 같은 길을 선택하려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형제의 조언은 '참을성을 가져라'로 요약된다.

최민주 | 풋사과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노력도 너무 부족하고 비슷한 그림도 너무 많은데 잘 익은 상태에서 데뷔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벼랑 끝을 걸어두고 스텔을 즐기는 사람이 된 후 나왔으면 해요.

최민철 |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라. 그리고 사고, 눈, 손 모두가 세상을 향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라는 충고를 하고 싶어요. 제가 공부했던 시절과 달라서 책도 많이 나와 있으니 그런 것도 많이 활용했으면 하구요.

그림 형제의 미래상

크게 소리 내지 않지만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있는 동생들 모습이 대견하다는 최민주 씨의 꿈은 앞으로 꽃잎 하나, 향 톳길 한 자락에도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 그리고 형과는 달리 출판과 애니메이션 모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최민철 씨는 두 영역을 융합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려 한다.

최민주 | 우리나라에도 고유의 색깔을 가진 출판사가 많이 나왔으면 해요. 그리고 <출판저널>이 일러스트레이터와 출판사 사이에 정보공유를 담당하는, 책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잡지가 되길 바랍니다.

늦었지만 <출판저널>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최민주 씨, 2~3주에 한 번씩 찾게 된다는 형의 공간에서 여유롭게 포즈를 취한 최민철 씨, 그리고 인터뷰 도중 자꾸만 '아빠!'를 외치던 최민주 씨의 아들 형준(7)까지. 붓으로 책을 만드는 이 가족들의 삶이 더욱 밝기를 기대해 본다. **주필**

취재 김철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